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2년 9월호

통권 제 22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교우소식

♣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 . 결혼 - 임재근군, 노윤아양
- . 개업 - 이경복 권사, 살롬의료기 체험방
- . 근무지변경 - 윤병대 장로, 대구CBS본부장
- . 개업이전 - 이성분 집사, 소성죽집
- . 출산(특남) - 지명근, 박해나 부부
- . 출산(특녀) - 이후석, 이시은 부부

♠ 이사했습니다.

- . 정준모, 구선희 집사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 . 정윤식, 황영주 집사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리엔파크아파트
- . 정태순 권사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 감사합니다.

- . 이정섭 장로, 오군자 권사 - 점심식사 제공

♣ 기도를 해주세요.

- . 입원 : 김영자B 집사, 수지호병원504호
- . 별세 : 고 손종선 장로(인치명, 이화숙 집사 모친)
- . 입원 : 김유광 성도, 백병원1112호
- . 입원 : 석진수 권사(이성복 집사의 모친)
- 안양샘병원422호
- . 별세 : 고 박정숙 권사(이정섭장로의 모친)
- . 입원 : 이충희 집사, 연세사랑병원802호
- . 입원 : 박호균 집사, 서울대병원72동19호

교회주요일정

바야흐로 7-8월은 여름수련회의 계절이다. 교회 학교를 비롯한 교회기관들이 여름을 맞이하여 '말씀과 기도'의 나눔을 통하여 신앙을 수련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은혜가운데 마친 수련회일정이다.

- . 영아부(7월8일,15일) - 안동교회 영아부실
- . 유치부(7월7일-8일) - 안동교회 유치부실
- . 유·소년부(7월20일-22일) - 원주 학의동지
- . 중·고등부(7월29일-31일) - 인천 무의도
- . 청년부(8월10일-13일) - 충남 서천
- . 3040(8월11일-12일) - 원주 오크밸리
- . 2부찬양대(8월17일-18일) - 강원도 양양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 어느덧 시원한 바람으로 가득한 가을이 왔습니다. 모두 여름 잘 보내셨죠? 여러분과 함께 영아부는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여름성경학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2년 7월15(주), 7월22일(주)에 있었던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의 즐거운 찬양과 율동, 성경이야기로 가득한 배움터, 재미있는 오감 센터의 초점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모시는 네 가지 태도를 배우는데 있었다. 예수님은 최고로 모시는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었다. 마태복음 16: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주인이며, 구세주이며, 하나님이였다.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태도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세 번이나 물으시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은 베드

로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가’였다.

베드로의 예수님 모시는 셋 번째 태도는 왕이신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셨던 네 번째 태도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제사장과 관원들의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영아부 아이들은 넷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으로 나는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고백이 자라가서 더욱 큰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세상을 환하게 반짝아이 썩썩”

안동교회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7-8일 안동교회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상을 환하게 반짝아이 썩썩”이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를 유치부에 맞게 다듬은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모습을 ‘반짝아이’와 ‘썩썩’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열리기 몇주 전부터 선생님들이 손수 땀흘려 성경학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을 기대하면서 더운 것도 모른채 준비하셨습니다. 열심히 성경학교에서 할 찬양과 율동, 성서학습, 활동학습, 코너학습, 물놀이 등을 준비하다보니 어느새 성경학교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흥분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경학교 당일이 되어 고무적이었던 것은 우리 기존의 유치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안동어린이집의 아이들도 성경학교 소식을 듣고 달려와 함께 성경학교에 참석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선생님 때문에 낯설어 할 법도 한데 하나가 되어 잘 어울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는 예배에서부터 ‘세상을 채우는 빛’ 영상과 ‘별이의 반짝이는 영당이’ 그림자극을 통해 아이들이

‘빛’에 대해서 알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감으로 도화지에 찍어 발라 반으로 접는 데칼코마니는 아이들이 마음껏 세상의 빛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 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배우는 성서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눈빛은 또랑또랑하였고, 말씀을 따라 직접 스토리라인을 만들기를 통해 세상의 빛을 되새기기도 하였답니다.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물놀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전내내 선생님들이 물놀이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아이들은 그 수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쭈뼛쭈뼛 하였지만, 곧 물에 적응하고 물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물총을 배포하자 아이들의 손에는 전부다 물총이 들려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물총놀이, 물싸움 등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치지 않고 물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억지로 나오라고 해야 할 정도로 아이들의 신나는 물놀이였습니다.

물놀이로 지칠 법도 한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바로 코너학습이 이어졌습니다. 두 개의 과학활동과 한 개의 협동활동을 아이들이 돌아가며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환해지며, 세상의 빛인 우리들이 힘을 모으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채 성경학교 첫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면서 둘째날을 기억했습니다.

둘째날은 성서학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성서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은 더욱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대그룹활동에서는 두 팀으로 나누어 야광스티커를 붙이는 게임을 하면서 마음껏 빛을 표현해보았습니다. 닫는 예배에서는 손인형극으로 동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반짝아이임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반짝아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깨달아서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는 끝이 났지만 아이들을 향한

유치부의 열정을 계속 될 것입니다.

유 · 소년부 성경학교

유·소년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 '학의 등지'로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누구? 세상의 소금, 빛!"이라는 주제로 2박3일 동안 물 좋고 공기 좋은 산골에서 잘 먹고 잘 놀며 즐겁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예년과 다르게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주의 주일 예배 때부터 성경학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 시간을 빌려 조별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아이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스스로 조를 나누도록 하고 그 이후 각 조의 조장과 조원들이 조 이름, 조 구호, 조 가, 조 깃발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조를 만들고 꾸밀 수 있어서인지 아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조별 활동에 임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힘을 모아 예쁘고 멋있게 자기 조를 표현하려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조별 활동을 아이들의 손에 맡겨두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즐겁게 진행된 조별 활동 덕분에 성경학교는 시작도 전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학교 첫째 날은 방학식이 있는 학교가 있는 관계로 조금 늦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식사 시간 무렵 성경학교장에 도착한 아이들은 적지 않은 시간동안 차를 타느라 배가 고팠는지 두 그릇, 세 그릇 씩 밥을 딱딱 해치웠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몸을 부대끼며 친교를 나누고, 이후 저녁집회 때는 '소금'에 대한 주제 강의 I 을 듣고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기상미션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암송 게임(기상미션)을 통과한 순서대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센터학습을 진행 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그리고 사이버 세상에서 어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과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풀장에 시원한 계곡물을 받아 오후 내내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물총 싸

움도 하고 편을 갈라 물장구도 치며 지칠 줄 모르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성경학교를 닫는 예배 때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물어봤는데 가장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 시간을 꼽았을 만큼 아이들에겐 즐거운 시간이었나 봅니다. 저녁 식사는 물놀이를 지쳤을 아이들을 위해 고기와 소시지를 구워 바비큐 파티를 하였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빛'에 대한 주제 강의 II 를 나눈 후 곧바로 캠프파이어를 이어갔습니다. 불꽃 점화와 주제 말씀 점등을 마치고 이재영 선생님의 셔플댄스 교습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며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댄스 교습을 열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셋째 날 역시 보물찾기 기상미션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션을 통과한 순서대로 아침을 먹고 여름성경학교를 총정리 하는 복습 퀴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닫는 예배와 시상식까지 모든 성경학교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아이들 모두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의 은혜의 물결이 계속해서 유·소년부 가운데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유·소년부의 여름성경학교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유·소년부에서는 오는 9월부터 유년부와 소년부를 분리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분리를 통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춘 찬양과 말씀을 공급함으로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자 이 일을 준비 중에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도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 · 고등부 여름수련회

중·고등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무의도에 있는 '해변의 꿈' 펜션으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학생은 총 22명, 교사 14명 등 총 36명이 참여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여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더욱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번 여름수련회 장소 바로 앞에는 해변이 펼쳐져 있어 아이들이 썰매 채충전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첫날은 도착하자마자 류금주 목사님의 '안동교회 100년사' 강의를 통해 안동교회 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다질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어진 레크레이션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으며, 성경공부를 통해서도 요한복음을 통독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접하면서 신앙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더불어 저녁 프로그램인 '힐링캠프'는 우리의 신앙을 연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수련회 별미는 특급 요리사인 안일현 집사님의 요리였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닭볶음탕을 시작으로 카레라이스, 김치찌개,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들은 영의 양식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뜻 깊은 추억이었습니다. 매끼니 때마다 3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그 사랑 덕분인지 우리 아이들이 부쩍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야채 준비와 설거지 등 선생님들의 수고도 뒷받침 되었습니다.

둘째날은 아침 큐티와 성경공부가 이어졌고, 그 뒤 '바가지 프레이즈'라는 쟁반 노래방 형식을 차용하여 찬양을 조별로 완성하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틀리면 조원 모두가 물바가지를 받는 등 서로 간의 승부욕을 발산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펜션 앞 바다가에서 물놀이가 이어졌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가진 뒤 천로역정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날도 역시 아침 큐티 및 성경공부와 더불어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뒤 각종 시상과 닫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무사히 도착하여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2박3일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내년에는 3박 4일을 요구하는 좋은 반응을 보여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해 교사들 모두 보람찬 섬김이었음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아무쪼록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섬겨주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지면을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의 성장을 위해 더욱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의 수련회

임 채 호

한여름의 더위가 절정에 이르러 그 뜨거움을 믿음의 열정으로 바꾸고자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이 만들어낸 뜨거움은 비로 인하여 바로 식어 버렸지만 저희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뜨겁게 수련회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련회는 언제나 그렇듯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고, 기도로써 삶에 지침과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며 또 그 행하심을 따르며 수련회는 그렇게 은혜로써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저희 청년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만 수련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천에 있는 후암교회에 들러 서천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삼계탕도 대접해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장기를 보여드리며 함께 찬양과 기도로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저희의 뜨거운 열정을 전달해드리며 후암교회와 안동교회가 하나 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청년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김유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비블리오 성경공부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나누다 보니 청년 각 개인이 가지는 생각과 개성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각자의 이야기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배우고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수련회 2박 3일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느낀 부분은 한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느끼게 하고 또 그 은혜가 모두에게 전파되고 전파되면서 어쩔 시작할 때는 분산되어 있던 마음들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하나로 뭉쳐 그 하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 개최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목사님 수련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백종관 장로님 그리고 후암교회와 하나 됨을 만들어 주신 찬양해주신 찬양팀 그리고 저희 청년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 김유태 목사님과 방승주 부장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기독교 신앙인의 바른 삶 기대

최근에 진행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때아닌 '종교 편향'이 논란이 된바 있다. 후보자가 특정 종교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편향적이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내용을 잠재하고라도 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종교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시작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선교의 장애가 되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보지만 쉽게 벽을 허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더 벽은 도저히 넘지 못할 정도로 두터워져만 간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은 더욱더 한국교회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잘 알려진 정치 지도자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나타나는 당혹감이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 중직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것은 한국교회의 도덕성에 흠집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적 지식을 높여가고 있으나, 삶은 지식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학교)에서 신앙인으로써 삶의 방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교회내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는 특정 종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있다. 이로 인해 기독교가 일반인들에게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더이상 부도덕한 행위로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기를 소망한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치가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행하는 도덕성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사회적인 문제로 손가락질을 받을 때 더 부각되고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19대 국회가 출범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1백8명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숫자이다. 이들이 기독교 바른 신앙으로 정치에 임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더 이상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 교육과 함께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일 아침 부랴부랴 공과 준비하는 '하루살이 교사'는 가라

한국교회가 최근 다음세대를 염려하기 시작하면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상 교육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쟁에 길들여지는 요즘 아이들의 세대 속에서 일선 학교는 물론 교회학교에서도 교사의 지도력이 흔들리기 쉽다는 지적이다.

근속년수가 수 십년 쌓인 교사들도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나 세차들과 세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청년층 교사들도 "도대체 아이들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교회학교 교사가 자기성찰을 하면서 자긍심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회학교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으로 일명 '하루살이 교사'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토요일 오후나 주일 아침에야 부랴부랴 공과공부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부터 버리라고

지적이다. 평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주일에만 교사로 변신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총회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 류영모목사(한소망교회)는 "다음세대를 키워내는 일은 영적전쟁이다. 교사들은 그저 단순한 봉사자라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선교사라는 생각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자기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 통독은 필수고, 요즘 트렌드를 읽어내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

42년 간 교회학교 교사생활을 해온 아동부전국연합회 회장 박한철장로(인창교회)는 "교사는 지식 습득이라는 학문적 준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다. 교사는 전공과 교양에 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또한 인간성의 존중, 합리적 행동, 지식 전달의 기술,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 재무장도 교사들이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책임을 지는 헌신된 교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다.

총회 다음세대교회교육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영택목사(경주제일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이론과 교수법으로 무장된 교사라해도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비록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영원을 가게 한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절대적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단 경계에 더욱 앞장서자

여름철 신앙수련의 계절을 맞아 전국교회가 막바지 여름 행사로 분주한 시기에 이단들이 캠프나 수련회를 개최해 기성 교회 청소년을 미혹하고 있어 철저한 이단 예방 교육과 방대책이 요청된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단 총회는 8월 첫째주일에 총회가 정한 이단경계주일을 맞았다. 이단들이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깊숙히 파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단경계주일을 맞게 돼 우리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더욱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단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교회에 침투해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가 하면, 교계 연합기관에 침투해 활동하는 등 불순한 의도를 내비쳐왔다. 연합기관의 일부 인사들이 이단과 연계돼 있다는 구설수로 인해 연합기관이 나뉘지는 진통을 겪는가 하면 지금도 그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극성을 부리며 기성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들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 본보도 적극 동참해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단들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사이비 이단이 뿌리 뽑히지 않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도 양의 탈을 쓰고 기존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들에 대한 교인들의 깊이 있는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교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이단들에 쉽게 현혹당하기 일쑤다. 심지어 교회 내의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단의 침투에 대한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전히 새신자로 위장 침투해 교회에 불만이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려는 사이비 이단의 무리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교회 차원에서 이단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교육돼야 할 것이다. 최근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을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경공부 교재를 발간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총회가 제정한 이단경계주일에 맞춰 성경공부 교재를 발간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볼만하다. 교계가 연합으로 이단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처한다면 한국교회의 힘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한국교회가 이단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 사회 변혁, 교회의 사명

아름다운 올레길을 걷던 여인이 살해되고, 평화로운 농촌에서 초등학생이 이웃 어른에 의하여 무참히 희생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은 오늘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일 뿐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사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과연 우리가 꿈꾸고, 노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잘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개인소득이 3만불인 나라는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인가? 물론 경제성장은 우리의 사회발전에 주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그것은 잘 사는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들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하여 아름다운 올레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길을 걸을 이들에 대한 보호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성범죄자의 관리 부실은 어린 생명을 치한의 폭력 앞에 내어 놓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보다 치명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성문화이다. 가정집들이 모인 동네 한 가운데에 자리한 수많은 술집들과 불야성을 이루는 밤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그러진 사회문화다. 술로 인한 폭력과 범죄에 대하여 더욱 가중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경찰과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보호체계를 매우 취약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함께, 특별히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선시 하는 생명문화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로 인하여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문화의 타락과 음주문화의 왜곡으로 인하여 여성들 상당수가 유흥업계에 종사하거나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경

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과 문화가 이렇게 일그러져 있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볼 수 없다.

이제 교회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문화를 바로 세우는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물질 중심 문화의 득세와 함께 작은 자를 가벼이 여기며, 생명보다 쾌락을 우선시하는 타락한 문화를 변혁함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곧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일러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사회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하여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런던올림픽 출전 기독교인 선수들

2012 런던올림픽은 한국시각으로 28일, 오전 5시 영국 런던 북동부 리버리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개막해 17일간 개최됐다. '하나의 삶(Live As One)'을 모토로 내건 런던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한 도시에서 세 번째 열리는 올림픽이다. 그 중 1948년에 열렸던 제14회 런던올림픽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해 태극기를 앞세우고 처음 출전한 대회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다.

특별한 인연 때문일까. 기독교선수들은 선배들이 태극기를 품고 첫 출전했던 런던, 바로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까지 쏟아냈다.

태릉선수촌교회 담임 박철승목사는 "태릉선수촌에 입소해 태극기마크를 가슴에 달고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겐 큰 영광이자 행복이다. 하지만 태릉선수촌은 올림픽 메달의 산실인 만큼 체계적인 훈련과 그에 따른 고통이 뒤따른다"며 "그동안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 속 입에 가쁜 단내를 풍기며 연습하고 지쳐있는 선수들을 볼 때면 항상 안쓰럽다"고 했다.

대부분의 선수, 훈련을 빗대어 '지옥훈련'이라고 칭한다. 팔을 들 힘도 없고 다리가 풀려 탈진 직전이지만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묵묵히 구슬땀을 흘렸다. 메달을 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지막까지 지옥훈련을 망설일 것이 없다. 하지만 남자유

도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재범(명성교회·27세)이 훈련기간 중 "'천국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재범은 "과거에는 지옥에 온 것만큼 힘들어, 지옥훈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감독님께서 휴식과 운동을 적절히 해주셔서 이제는 '천국훈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선수는 "내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훈련받는 과정인데, 어떻게 지옥훈련이 되겠느냐"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개막전인 지난 11일, 한국선수단 결단식과 막바지 훈련을 마친 기독교선수들이 수요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태릉선수촌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다. 역도의 장미란을 비롯해 태릉선수촌 지도위원 안래현장로, 태릉선수촌의 대표 영양사 한정숙집사, 스포츠선교사 이정숙전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기독교선수와 관계자들은 뜨거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영적체력을 굳건히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체육인 △태릉선수촌 복음화 △종목마다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생명을 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훈련과 경기 가운데 부상당하지 않도록 합심으로 기도했다.

땀과 열정의 흔적 때문일까. 예배당 곳곳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비쳐졌다.

태릉선수촌에서 기독교선수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윤덕신전도사(태릉선수촌교회)는 "신우회가 활성화되면서 1986년부터 선수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기독교선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번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믿음의 선수들도, 두려움 없이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철승 목사는 "태릉선수촌 전체 인원 중 30% 정도가 크리스찬이다. 하지만 훈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 것처럼 실전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태릉선수촌지도위원 안래현 장로는 "하나님께서 스포츠를 통해 희생과 충성, 화합과 일치, 훈련과 열매 등 다양한 가치가 포함된 보석과 같은 선물을 허락하셨다"며 "우리 선수들이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충성했던 모든 과정들을 올림픽 기간 동안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올림픽에 한국은 22개 종목의 선수 2백45명을 포함한 총 3백74명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그리고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이내 진입이라는 당찬 목표도 세웠다. 더불어 기독교선수들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감으로 무장했다.

기독교선수들의 얼굴 위로 흐르는 땀방울과 결의에 찬 눈빛에서 런던 하늘에 펼쳐질 태극기, 기도세리머니의 감동의 재연을 기대한다.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pckworld.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복존우물가

2012년 9월호 · 통권 제 222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종 혁

김 유 태

발행일 : 2012년 8월 31일